

## 8 교양교육, 학습자 요구 반영 어떻게?



2018년 후마 재도약 실행위원회(TF)가 교육과정 개편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.

(사진=대학주보 DB)

# 교양강의 개설 학생 의견 반영할 소통 창구 필요

이봄 기자 lbom.kr@khu.ac.kr

교양 강의 개설에 학생 의견을 제  
안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목  
소리가 이어지고 있다.

### 원하는 분야의 강의 건의할 기회 부족

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최재웅  
(한의학 2021) 씨는 “입학 전부터  
교양으로 생활경제 관련 강의를 듣  
고 싶었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(후  
마) 배분이수에 원하는 강의가 존  
재하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 이예진  
(국어국문학 2019) 씨 역시 “평소  
관심 있던 미술사와 관련된 강의  
를 찾았지만 개설된 강의를 찾지 못  
했다”며 “원하는 강의가 뚜렷이 존  
재했지만 학교 측에 교양수업 개설  
에 대한 의견 전달 창구를 찾지 못  
해 답답했다”고 자신의 경험을 전  
했다. 또한 재학생 A 씨는 “폐강 여  
부에도 학생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  
만큼 강의 개설 초기 단계에서 학생

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당연히 포  
함되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우리학교는 교양강의 개설에 학  
생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  
족한 편이다. 서울캠퍼스(서울캠)  
후마는 교양 배분·자유이수 강의에  
대해 의견을 수용할 창구가 없는  
상황이다. 후마 대학생위원회를 통  
해 배움학점제 과목에 대해서만 의  
견을 받고 있을 뿐이다. 후마 대학  
생위원회 이준서 씨는 “교양 배분·  
자유이수 강의 개설에서 후마 대학  
생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  
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”고 밝  
혔다.

우리학교 국제캠퍼스(국제캠) 후  
마는 총학생회(총학)의 설문조사로  
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나,  
총학을 제외하면 별도 소통 창구가  
존재하지 않았다. 2021학년도에는  
총학 측이 신규강좌개설과 관련한  
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신설 교  
양과목이 없었다. 2019년도에는 총  
학의 설문조사로 신규 강좌가 3개  
개설됐으나, 총학이 학생들의 의견

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의견이 반  
영되지 않는 것이다. 국캠 후마 오  
상민 행정실장은 “2020학년도에는  
총학 측에서 비대면수업 운영에 대  
한 모니터링에 집중해 신규강좌개  
설과 관련한 요청 사항이 없었기 때  
문”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.

지난 2019년 후마가 교육과정을  
개편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의견  
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  
다는 평을 받았다. 개편을 앞두고  
2018년에 후마 재도약 실행위원회  
를 구성했지만 해당 위원회에는 각  
분과별로 서울·국제캠 총학 추천학  
생 2명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 
있었다. 이후 개편 결과를 바탕으로  
후마 측과 학생자치단체가 갈등을  
빚기도 했다. 당시 학생단체 측은  
“TF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미 개

편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  
입되었다”며 후마의 소통 부족 책  
임을 물은 바 있다.

**총학 개최 공모전 이후  
학교 측 의견 창구 ‘이직’**

지난해 9월 서울캠 총학이 개최한  
‘학생들이 만드는 배분/자유이수 공  
모전’은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  
는 새로운 창구로 볼 수 있다. 이는  
우리학교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 
직접 설계해 실제 교실까지 이어져  
온 첫 사례다. 최종 수상작으로 선  
정되어 지난 1학기에 개설된 과목  
인 ‘한국수화언어와 농문화’는 강의  
평가점수 97점 이상으로 높은 강의  
만족도를 보이며 마무리됐다.

해당 수상작의 팀원인 허지영(한

의학 2019) 씨는 “평소 후마 교양과  
목 중에서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수  
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”며 공모전  
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. 허  
씨는 “직접 원하던 강의 개설에 참  
여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”며 해  
당 과목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.  
허 씨는 “서울대, 고대 등 많은 학교  
에서 이미 학생 요구에 따라 관련  
강의가 개설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 
상태였다”며 “우리학교도 해당 공  
모전을 발판 삼아 학생이 직접 원하  
는 과목을 설계하고 교실에서 들을  
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”  
고 말했다.

다만, 우리학교의 강의 공모전은  
학교가 아닌 총학이 주체가 돼 지  
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. 해당  
교양강의 공모전은 학교 측이 아닌,  
당시 총학 측 교과과정심의위원장이  
총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. 총학  
은 당초 공모전을 일회성에 그친 단  
기 행사로 기획한 바 있다.

이와 달리 서울대나 성신여대, 한  
양대 등은 모두 각 학교의 교양교육  
을 담당하는 교내 기관에서 공모전  
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  
을 받고 있다. 서울대 기초교육원은  
2019년에 수요자 중심의 신규 교과  
목을 개발하고자 ‘학생이 바라는 교  
양교과목 공모전’을 개최했고 수상  
작 중 2개 과목의 개설을 결정했다.  
이후 서울대는 지난 8월 2일 ‘제2회  
학생이 바라는 교양교과목 공모전’  
을 개최하며 해당 공모전을 이어가  
고 있다.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은  
2018년에 학생 교양교과 공모전을  
개최하여 지난해까지 총 3회의 교  
양교과 공모전을 진행했다.

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 
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 
때 학생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.  
대학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요구와  
관련된 한 연구는 “4차 산업혁명 시  
대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 
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 
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과목을 설  
정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대학의  
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다른 연구는  
“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지속적으  
로 수렴되고 교육과정에 실질적으  
로 반영될 때, 진정으로 학생의 요  
구를 반영하는 유연한 교육 운영이  
실현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서울캠 후마 측은 “교양과목의  
다양성을 위해 총학 공모전 결과를  
반영, 교과목을 신설했다”고 말했  
다. 다만, “전문 강의 인력이 부재  
하고 교양 과목 비중을 늘리는 것  
에는 한계가 있다”며 “매년 공모전  
을 개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 
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  
다”고 말했다.



우리학교 서울캠 후마는 “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교양강좌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  
으로 어렵다”고 말했다.

(사진=대학주보 DB)